

제 1 교시

국어 영역

■ 6모 전일까지 해야 할 것

◆ 틀렸던 / 헛갈렸던 문항 위주로 복습하자.

- 지금까지 풀었던 교재 펼쳐보며 틀린/헛갈린 문항 다시 보자.
- WHY / HOW 분석은 꼼꼼히 읽어두자.

◆ 시간 재고 기출 1회분씩 풀자.

- 3개년 수능 기출(밴드 PDF 활용)을 80분 재고 풀자.
-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며 풀자.

◆ 자기 전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자.

- 6모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험 끝나는 장면까지 상상하자.
- 80분 동안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자.

■ 6모 아침에 해야 할 것

◆ 이 예열 자료에 수록된 지문 차분히 읽자.

◆ 실전 운영 원칙 4가지를 외워서 써보자.

■ 6모 이후 해야 할 것

◆ 절대 스스로 답 보며 채점하지 말자.

- 답을 보는 순간 실력 상승 기회를 몽땅 잃는다.
- 남에게 채점을 부탁하거나 온라인 채점 서비스 활용할 것!

◆ 100점이 나올 때까지 다시 풀자.

-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좋다! 100점이 나올 때까지 다시 푼다.

◆ 본인만의 '손필기 해설'을 작성하자.

- 노트를 준비하고 각 지문에 대한 요약을 작성하자.
- 모든 문항 / 모든 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도 써보자.

◆ Why & How 피드백을 작성하자.

- 모든 문항에 대해 시험 운영 원칙 4가지 각각을 지켰는지 분석하고 쓰자.
- 틀린/헛갈린 문항은 WHY / HOW 분석 진행하고 정리하자.

■ 실전 운영 원칙 4가지

1. 풀이 순서/시간 지키자.

- 계획과 너무 다른 풀이를 해서도 안 되지만, 계획을 너무 딱딱하게 지킬 필요도 없다. '유연하게' 지킬 것.
- 자신의 풀이 순서 / 시간 계획을 써보자.

2. 침착하게 꼼꼼히 읽자.

- 급하다고 대충 달려 읽는 순간 문제도 날아간다! 절대 급해지지 말자.
- 한 번에 제대로 읽으면, 다시 읽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시간은 단축된다!
- 뒤의 예열 자료 읽을 때도 '침착하게 꼼꼼히' 읽어볼 것!

3. 뇌피셜로만 풀지 말자.

- 정답 선지의 확정은 '의심 → 근거 확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정답의 근거가 확인이 안 될 시, 나머지 4개의 선지를 다시 보면서 꼼꼼히 소거하자.

4. 3트는 없다! 별표 치자.

- 모든 문제는 2트(두번째 시도)까지만 도전하자. 2트에서도 안 풀리면 별표 치고 과감히 넘겨야 한다.
- 3트는 없으니까 2트는 훨씬 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


<https://open.kakao.com/me/ysk202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이외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접하곤 한다. 시각 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문자가 제공하는 정보, 즉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지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한다. 이 두 정보들은 서로 참조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시각 자료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예시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목적에 더하여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각 자료는 여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 ②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부각할 수 있다.
- ③ 독자가 시각 자료에 끌리다 보면 글을 읽는 목적을 잃을 수 있다.
- ④ 시각 자료의 용도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답)
- ⑤ 독자는 낯선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의미는 글 내용과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상호 참조되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③ 문자로만 구성된 글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면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었을 수 있다.
- ④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시각 자료의 관련성을 따지고 시각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⑤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야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답)

3. <보기>는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다.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글 속에 있는 그림을 보니, 그림1에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것을, 그림2에서 그것들을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진 모습을 담고 있었다.

- ① 비행기 그림은 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예시적 시각 자료이다.
- ② 그림 1은 글 내용을 시각화해 보여 주면서 글 내용도 보완해 주는 설명적 시각 자료이다. (답)
- ③ 그림 2는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여 주는 보충적 시각 자료이다.
- ④ 그림3은 글 내용에 있는 설명 대상을 표현하여 글의 주제와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그림2와 3은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을 복기하여 여백에 요약하세요.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 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 비트*가 필요하고 n 자리 이진수는 모두 2^n 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을 복기하여 여백에 요약하세요.

양 원수가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재촉하니, 남해 태자가 크게 노해 천만 종의 물고기에게 명하자 잉어 제독과 자라 참군이 기운을 돋우더니 용맹스럽게 뛰어나왔다. 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베어 내고 백옥 채찍을 들어 한 번 휘두르니 백만 군병이 일제히 짓밟히며 삼시간에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태자는 몸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다. 마침내 태자가 원수의 군사에게 잡혀 결박된 채로 원수의 말 앞에 엮드리자, 원수가 크게 기뻐하며 징을 쳐서 군사를 돌렸다. 그때 수문군이 양 원수에게 알려왔다.

“백룡담 낭자가 직접 진 앞에 나아와 원수를 치하하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양 원수가 사람을 보내 맞아들이자 용녀가 원수의 승전을 치하한 후, 술 백 석과 소 백 마리로 군사를 먹이니 군사들이 배를 두드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용맹한 기운이 전보다 백 배나 더했다.

양 원수는 용녀와 함께 앉아 남해 태자를 소리 높여 꾸짖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사방 도적을 치면 일만 귀신도 감히 명을 거역하는 자가 없는데, 너같이 조그만 놈이 천명을 모르고 감히 대군을 거역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함이다. 한 자루의 보검이 있는데 이것은 위징 승상이 경하의 용을 베던 칼이다. 내가 마땅히 네 머리를 베어 우리 군사의 위엄을 떨쳐야겠지만, 너의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 인간 세상에 비를 내리 내린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용서한다. 지금부터 이전 행세를 고쳐 낭자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양 원수가 태자를 끌어 내치게 하니 남해 태자는 숨도 크게 못 쉬고 돌아갔다. 그때 갑자기 상서로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붉은 놀이 영롱하고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했다.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며 붉은 옷 입은 사자가 종종걸음으로 나와서 말했다.

“양 원수가 남해 태자를 치고 공주의 위급함을 구하신 줄을 동정 용왕이 아시고 친히 진문 앞에 나아가 치하하려 하시나, 정사에 매인 몸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별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맞아 들이고자 하니 원수는 공주를 모시고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적군이 비록 물러갔으나 아직 진을 친 것이 있고, 또한 동정호가 만리 밖에 있으니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가 길 것이다. 군사를 거느린 자가 감히 멀리 나갈 수 있겠는가?”

“이미 여덟 용이 수레의 멍에를 갖추었으니 반나절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용의 수레를 타고 동정호로 간 양 원수는 용왕의 잔치에 참석한다. 잔치 후 형산을 유람하던 양 원수는 여러 승려가 모인 절에 들어간다.

원수가 곧 불전에 나아가 분향재배하고 전각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놀라 깨어났다.

사방을 살피니 자신은 진중에서 책상에 기대어 있었고, 아침은 이미 밝아 있었다. 원수가 이상히 여겨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너희들도 꿈을 꾸었느냐?”

그들이 일제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소장들도 꿈에 원수를 따라 신병귀졸과 크게 싸워 이기고, 그 대장을 사로잡아 돌아왔으니 이는 실로 도적을 무찌르고 사로잡을 좋은 조짐입니다.”

원수가 꿈속의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장수들과 함께 백룡담에 가 보니,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흐르는 피는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 원수가 친히 표주박을 들고 물을 떠서 맛을 보고 나서 병든 군사에게 먹이니 병사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원수가 군사와 말을 모두 몰아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니 기뻐하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그러자 도적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곧 항복했다.

양 원수가 천자에게 첩서를 계속 올리자 천자는 크게 기뻐했다.

- 김만중, 「구운몽」 -

가보자고

